



인기 프로듀서 용감한형제가 만든 그룹 일렉트로 보이즈. 왼쪽부터 원카인, 마부스, 차륜.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용감한형제’의 아이들 일렉트로 보이즈 컴백

뮤비 촬영 당시 의상 소품만 2억 이번엔 성공하자 아낌없이 팍팍



“‘용감한형제’ 이름 덕 좀 계속 보려고요. 하하하” 요즘 한창 인기 높은 스타 프로듀서 용감한형제의 자식들(?)쯤 된다. 3인조 힙합 그룹 일렉트로 보이즈, 듀오 데뷔했지만 올해 3인조로 팀을 재편성했다.

빨강고, 노랑고, 앞머리로 눈을 덮은 특이한 스타일까지 외부부터 누구 하나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이름도 외모만큼 독특 된다. 물론 예명이지만 하나같이 유별나다.

래퍼 마부스(본명 임성렬)는 ‘My Boo’라는 영어의 속어로 ‘나의 사랑’, ‘나의 연인’이라는 뜻이다. “모든 여자의 부가 되고 싶다”는 뜻에서 지었다.

마부스와 랩을 담당하는 원카인(본명 김덴디)은 나 밖에 없다는 ‘One of Kinds’를 줄여서 원카인으로 정했고, 차륜(본명 차윤식)은 성만 ‘차륜! 차륜!’으로 부르다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도록 ‘차륜’으로 결정했다.

“모든 콘셉트가 사장님(용감한형제)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꾸며주셨고요. ‘용감한형제의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하죠.”(마부스)

이들에 대한 ‘사장님’ 용감한형제의 사랑은 이뿐이 아니다. 일렉트로 보이즈가 활동할 때 입는 옷과 액세서리의 가격을 따지면 수천만 원이 넘는다. 모두 용감한형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옷들이다. 이 정도면 거의 자식처럼 챙긴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지난해 데뷔했을 때 저희는 별 활동 없이 들어갔거든요. 그에 대한 아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끼던 옷까지 주면서 ‘바꿔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당시 입은 의상들과 소품은 2억 원도 넘어요.”(원카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탓에 이들의 심정은 절박하다. “다음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다. 타이틀곡인 ‘마 보이즈’는 이들의 색깔이 담긴 힙합과 댄스가 접목된 노래다. 데뷔곡 ‘전화가 오네’와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

“당시엔 댄스가 베이스로 깔린 음악이라 저희와는 안 맞았던 게 사실이에요. 노래는 좋았는데 마치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었죠. 이번 음악으로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원카인) 지난해 10월 합류한 막내 차륜은 이번이 데뷔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더 떨린다고 한다.

“우선 일렉트로 보이즈라는 이름을 알리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얼굴이죠. 용감한형제라는 타이틀을 당분간 엮고 가고 싶어요. 수식어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음악성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해요.”(차륜)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머니볼’ 홍보차 첫 내한 브래드 피트



3년 후 배우 은퇴? 글썽... 영화제작이 더 재밌긴하다

영화 ‘머니볼’ 홍보차 한국을 찾은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임진한 기자 photolim@donga.com 트위터@binyfala

아내 줄리에게 한국 좋은 얘기 많이 들어 평소 세인트루이스 팬팬...WS 우승 기뻐 젊음 보다 지혜...나이 드는 것 안 두렵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할리우드 톱스타이지만 시종일관 진지했다.

브래드 피트가 영화 ‘머니볼’(17일 개봉) 홍보 차 14일 밤 전세기를 이용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내한 첫 일정으로 15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 하나에 5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며 묵직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말했다.

처음 한국을 찾은 소감을 묻자 “지난해 한국을 다녀간 아내(안젤리나 줄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한국 시장은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에서 허브 역할을 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아카데미 주연상’ 인정받으면 즐거움 느낄 것

‘머니 볼’에서 브래드 피트는 최하위 야구팀의 구단주로 부임해 과학적 데이터를 도입해 강팀으로 키운 메이저리그의 실존 인물 빌리 빈을 연기했다. 인생사를 유머와 야구로 엮어낸 이 영화는 미국에서 먼저 개봉해 호평받았다. 흥행과 호평이 힘입어 브래드 피트는 내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의 유력한 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브래드 피트는 수상 가능성에 ‘쿨’한 태도를 보였다. “영화를 찍을 때 목표는 10년, 20년 후까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다른 면(수상)을 인정받는다면 추가적인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수많은 친구 배우들이 수상하는 것도 내게는 즐거움”이라고 했다.

적자생존의 할리우드 시스템에 적응하는 그만의 원칙을 묻는 말에는 “스토리를 본다”는 말로 긴 답변을 시작했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는

필까’, ‘이 시대를 알리는 티켓이 주어졌는데 짧은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누구와 이 작업을 할까’ 등을 늘 고민한다. 나는 부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여러 환경에) 맞물려야 하나 고민한다.”

브래드 피트는 어느 질문을 하든 “다양한 재능”,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영화의 주인공 빌리 빈과 자신의 공통점을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면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나이 드는게 두렵진 않다”

브래드 피트는 실제로도 야구팬이다. 좋아하는 팀은 올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미주리 지역에서 자랐는데 근교의 팀이라 이번 우승이 더 좋다”는 그는 “특히 월드시리즈 6차전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마법처럼 완성되는 게 야구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기다”고 평가했다.

최근 브래드 피트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기는 50세 때 은퇴하고 그 후엔 제작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묻자 “배우로 활동 중단의 기한을 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영화 제작에 더 흥미를 갖은 게 맞다”고 했다.

“제작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 지금 제작 중인 거대한 좀비 영화 ‘월드 워 Z’에는 한국 투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도 참여했는데 앞으로 한국회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오랫동안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로 인정받은 그는 “나이 드는 건 두렵지 않다”는 여유도 보였다. 이유는 “나이 들며 지혜가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젊음과 지혜 중 택하라면 지혜를 선택하겠다”는 그는 “자녀가 생기면서 달라졌다. 아빠로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나는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브래드 피트는 이날 오후 7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레드카펫과 시사회를 열고 관객과 만난 뒤 16일 새벽 출국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연예뉴스 스테이션

YG 공모주 청약증거금 3조6378억...경쟁률 560대1 인기 그룹 빅뱅, 투애니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3조6000억 원이 몰리며 청약대박을 기록했다. 상장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14~15일 이틀간 진행된 YG엔터테인먼트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결과 36만3962주에 모집에 2억970만주가 몰려 56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은 3조6378억 원이 모였다. 이는 올해 코스닥 시장 상장사 청약 증거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모가가 3만4000원으로 책정된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6만5000원까지 갈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금 납입일은 17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23일이다.

소녀시대·김병만 등 대중문화예술 유공자 상 받아 소녀시대가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수 김건모, 배우 이병헌, 개그맨 김병만 등을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인물로 선정해 ‘2011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표창은 가수 김건모, 코미디언 남철, 모델 도신우,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양현석, 배우 이병헌, 영화감독 홍상수가 국무총리표창은 라디오DJ 김기덕, 성우 김수희, 가수 정수라·소녀시대, 영화제작자 신철, 연주자 심성락, 배우 유동근, 드라마제작자 이진석이 받는다. 이밖에 문화부장관표창 수상자로는 연주자 김기표, 개그맨 김병만, 성우 서혜정, 배우 전인화·송일국·장근석, 코미디언 이경실, 녹음엔지니어 이태경, 가수 비스트·씨앤블루·애프터스쿨·제국의아이들이 선정됐다.

김현중 미니앨범 ‘럭키’, 일본 오리콘 주간차트 1위 가수 김현중이 10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럭키’가 일본 오리콘차트 수입앨범 부문 주간랭킹 1위를 차지했다.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김현중은 골드 플레이, 레이디가가 등의 팜스타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김현중은 7월 발표한 첫 미니앨범 ‘브레이크다운’도 같은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시크릿 ‘사이보이’ 일본 출시...전 트랙 일어로 노래 걸그룹 시크릿(사진)이 16일 일본에서 미니앨범 ‘사이보이’를 발표한다. ‘사이보이’는 시크릿이 1월 국내에서 발매해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는 등 크게 히트한 노래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미니앨범에는 ‘사이보이’를 비롯해 모두 여섯 트랙이 수록됐으며, 전 트랙을 일본어로 노래했다. 또한 앨범에는 ‘별빛달빛’을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편곡한 ‘크리스마스 매직’, 한국서 발표한 1집 수록곡 3곡, 그리고 ‘랄랄라’의 일본어 버전도 들어있다.

소지섭 ‘오직 그대만’ 100만 넘고 잔잔한 흥행 배우 소지섭과 한효주가 주연한 영화 ‘오직 그대만’이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10월20일 개봉한 영화 ‘오직 그대만’은 13일 현재까지 누적 관객 102만8000여명을 기록했다.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오직 그대만’은 상영관이 서울 27개관, 전국 143개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만 관객을 동원해 꾸준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정엽·조PD 등 에이즈예방 캠페인콘서트 참여 뮤직엔터테인먼트채널 SBS MTV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12월1일 서울 종로1가 SC제일은행 본사에서 ‘2011 에이즈 예방 캠페인 콘서트’를 개최한다. 가수 호란과 손호영이 진행을 맡는 이번 콘서트에는 캠페인 홍보대사인 정엽(사진)과 조PD를 비롯해 김태우, 에이트, 포맨, 클로버, 달샤벳, 노을, 이루, B1A4, 블라비, 마이네임, 씨리얼, 더블에이 등이 출연한다.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위원장, 내년 감독 데뷔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내년 감독으로 데뷔한다.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에 따르면 내년 10주년을 맞아 김 명예집행위원장이 개막작 단편영화를 직접 연출한다. 영화는 영화제 심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웃음과 갈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랭킹

순위	곡명	아티스트	앨범명
1	Be My Baby	원더걸스	Wonder World
2	서쪽 하늘	올랄라 세션	슈퍼스타K3 Part.5
3	그리워 그리워	노을	그리움
4	죽고 싶단 말 밖에	허각	죽고 싶단 말 밖에
5	막걸리나	버스커 버스커	슈퍼스타K3 Part.5
6	클렌징크림	브라운아이드걸스	클렌징크림
7	The Boys	소녀시대	The Boys
8	그 남자 그 여자	포맨, 미	그 남자 그 여자
9	친구잖아	이승기	Tonight
10	사랑은 Move	시크릿	Moving In Secret

**50세 이상도 보험가입 가능! 보험료는 하나도 오르지 않아!**

- ‘부담’이 아니라 ‘부요’이고 싶은 노년의 마음 담아 교보생명에서 준비! -

“몸이 있는 죽음(Well-end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교보생명이 50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한 노년보험을 출시해 보험수익을 높이고 있다. 이 보험은 50세 이상부터 최고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비가 저렴한 노년보험에 반하는 보험 상품이다. 게다가 보험료가 한 달도 오르지 않으면서도 가입시점부터 종신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대장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보령금이나 사고보령금에 기타 지급금을 향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령한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험이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상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다. 문의: 080-3969-0069 교보생명(www.directlife.com) 생명보험협회 상회 제2011-1770호(2011.10.27)

편집 | 양혜진 기자 yhn@donga.com 트위터@joyful